

이슈브리프

No. 2026-09

2025년 김정은 공개 활동으로 본 북한정세 평가

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서보배

연구원

2026-02-04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8차 당대회가 소집되었던 2021년 70여 회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00회 내외로 지지부진하다가 2024년 130회로 활발해지기 시작해 2025년에는 153회로 더욱 활발해졌다. 2025년 분야별 활동은 군사 50여 회, 경제·정치 각각 30여 회이며, 특히 대외가 20여 회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정은의 활동이 군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여러 부문에 걸쳐 고루 분포하게 된 데에는 대러 밀착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러 밀착에 따른 대외 활동과 군수공장 방문이 늘었고, 경제 여력이 생기면서 지방 발전을 추진해 건설 현장 방문도 증가했다. 2025년은 특히 대중 관계 복원, 각종 정치행사, '5개년 계획' 마무리로 김정은을 분주하게 했다.

2025년 김정은 공개활동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핵무기와 상용(재래식) 무력 병행 발전'을 추구해 김정은이 군수생산과 무기 개발 독려를 위한 군사 부문 행보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었다. 둘째, 종래의 '지방 발전 정책'을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지방병원·대규모 온실 건설 등으로 확대해 경제 부문 활동은 건설현장 방문에 치중되었다. 셋째, '조국해방' 80돌, 당 창건 80돌 등 김정은의 각종 정치행사를 주관하면서 '국기 게양식', '충성 결의', '만세 합창' 등 상징조작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서 '인민성'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잦았다. 넷째,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 조짐을 보이면서 라오스·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하는 등 대외활동도 증가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통해 본 체제 관리 방식은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의 혼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로 보고 이를 활용하여 정권에 경제적 수혈을 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을 확장하면서 남북 관계는 적대관계로 몰아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올해 9차 당대회라는 큰 내부 행사가 있음에도 대외관계를 활용한 '전면적 부흥'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정세가 불리해지기 전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북한의 도발 유인을 억제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국경선' 공표 등에 따른 북한의 정세 조작 가능성에 대비하며, 소프트웨어 개혁이 없는 하드웨어 확장식 발전모델이 초래할 부작용에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년 김정은 공개 활동 분포

2025년도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¹ 153회로 2024년(130회)보다 23회 늘었고, 2022년(99회)과 2023년(107회)보다는 대폭 증가했다. 2025년 활동의 분야별 분포는 군사 51회(2024년 53회), 경제 37회(28회), 정치 34회(28회), 대외 26회(11회), 사회 5회로 (2024년은 10회로 수해 관련 활동이 빈번) 건설 현장 방문, 정치행사 주관과 대외 활동이 늘었다([표 1] 참고). 2025년 시기별 김정은의 중점 활동을 보면, 상반기 활동(51회)은 경제·군사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데, 2월에는 각종 건설 현장 방문, 3~5월에는 군수공장·조선소 방문 및 군사훈련 현지 지도에 치중했다. 하반기에는 활동(102회)이 더 늘면서 다양해졌다. 7~10월 '전승절(7.27)', '조국 해방일(8.15)', '당 창건 기념일(10.10)'로 이어지는 정치 행사를 주관했다. 이어 9~10월에는 중국 방문 및 당 창건 기념행사 축하차 방북한 외부 인사 접견 등 대외 부문 활동이 많았다. 11~12월 들어 다시 각종 준공식에 참석하거나 정치행사 주관이 늘었다. 연말 들어서는 무기개발과 군수생산을 독려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과시하는 등 '핵 억제력'과 '국방력 강화' 정당화에 주력했으며, 이런 군사 행보는 올해 초에도 이어졌다.

최근 5년 김정은 활동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2024년부터, 더 정확히는 2023년 7월 전승절 이후부터 중점 활동이 군수생산 독려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동안 위축되었던 김정은의 통치 활동의 활성화는 대러 군사적 밀착 효과로부터 비롯되었다. 2024년 김정은의 대러 밀착에 따른 대외 활동과 군수공장 방문이 늘었고, 경제 여력이 생기면서 지방 발전 정책을 추진해 건설 현장 방문도 빈번해졌다.² 2025년에는 대러 밀착에 이은 대중 관계 복원에다가, 각종 정치행사의 증가와 5개년 계획 마무리 필요성이 김정은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다. 이를 보면 외형상 김정은은 대러 관계를 체제 관리에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정은이 자신의 공개 활동에 딸을 동반하는 빈도도 늘고 분야도 다양해졌다.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김정은의 '주애' 동반은 2023년 10회, 2024년 12회에서 2025년 15회로 증가했다. 동반 행사는 종래 군사·경제 분야 중심에서 2025년에는 대외 분야로 확대되어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절 계기 주북 러시아 대사관 방문(5.9)에 딸을 동반했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가차 방중 시에도 동행이 확인(9.2)되었다.³ 정치 행사 동반 사례로는 2025년에 이어 2026년 신년 경축 공연에 동반했고, 올해 정초에는 김정은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도 처음으로 데리고 가 주애가 중앙에 자리 잡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군사·경제 분야 활동에 딸을 동반함은 '미래 세대' 혹은 '사회주의 대가정'을 위한 자신의 리더십 선전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대외·정치 분야로 가게 우상화가 확대되면서 조기에 4대 세습 기반을 구축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고, 또 김정은이 과거 속전속결형 후계자 지위에 있을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습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집권 후에도 '애송이' 취급을 받는 심적 고통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권력의 사적 행사는 일인 독재 체제의 전형이며, 북한의 권력 세습 문제가 현안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관심 분산 활동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표 1] 김정은의 2025년 공개 활동 분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정치	2	1	-	-	2	1	4	5	2	7	5	5	34
군사	3	4	4	4	7	2	2	7	7	3	2	6	51
경제	1	5	2	2	-	3	2	3	3	3	4	9	37
사회	2	-	1	-	-	-	-	-	1	-	-	1	5
대외	-	-	1	-	1	3	2	3	7	8	-	1	26
합계	8	10	8	6	10	9	10	18	20	21	11	22	153
(참고) 2024년 공개 활동				군사 53, 경제 28, 정치 28, 대외 11, 사회 10회									130
연도별 공개 활동 빈도				2020년 54회, 2021년 78회, 2022년 99회, 2023년 107회, 2024년 130회									

*출처: 필자가 북한 매체 보도를 정리

분야별 공개 활동 특징

1. 정치 분야

김정은은 공개 활동의 분야별 특징을 그의 중점 활동과 특이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정은의 2025년 정치 분야 활동은 상반기에는 노동당 회의 주재 3회 등 6회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활동은 28회로 거의 5배가량 늘었다. 정치 분야 활동이 증가한 이유는 각종 기념행사(17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7.27 전승절 72돌 행사, 8.15 ‘조국 해방’ 80돌 행사, 9.9 정권 창건 기념행사, 10.10 노동당 창건 80돌 기념행사, 헌법절(12.27) 행사가 이어졌다([표 2] 참고).

2025년 북한 정치행사의 특징은 ‘국가’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해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의식을 고취하려 한 점이다. 북한은 7.27, 8.15, 9.9, 10.10, 헌법절을 계기로 ‘국기 게양식과 충성 맹세’를 정례화했다. 또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보훈’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애국심’과 ‘충성심’을 유도했다. 2026년 신년경축 행사(1.1)와 신의주온실 건설 현장 방문(1.2) 연설에서는 김정은이 ‘공화국 만세 합창’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체제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한 배경은 김정은 주장대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들이 애국·충정을 거대한 동력으로 준비”하기 위해 주민들 사이에 “전 인민적 애국열의”와 “대중적 영웅주의” 확산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⁴

[표 2] 김정은의 2025년 정치 분야 공개 활동

구분	상반기 6회	하반기 28회
정치행사	신년 경축공연(1.1)	○ 7.27 ‘전승절’ 즈음 참전군묘/우의탑/기념관 방문(7.26) 등 3회 ○ 8.15 ‘조국 해방’ 80돌 즈음 금수산궁전/혁명열사능/해방탑 참배, 경축 대회/예술 공연 참가(8.14~15) 등 5회 ○ 9.9 정권 창건 기념일 계기 국기 게양식 및 중앙 선서 모임(9.9) 1회 ○ 당 창건 기념일 당창건사적관 방문(10.8), 집단체조/경축대회(10.9), 기념연회/열병식(10.10), 금수산궁전/행사진행자격려(10.12) 등 7회 ○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 의식 1회 *정치행사 총 17회
회의 참가	당 비서국 확대회의(1.28),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5.29),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6.21~23)	최고인민회의 연설(9.21) 당 전원회의 참석(12.9~11)
추모·조문	김정일(2.16), 현철해 추모(5.18)	김일성·김정일(7.8, 12.17), 김영남 조문(11.4,5)
기관 격려	국방성(2.8*군사 분야)	창립 80돌 사법검찰기관/사회안전성/국가보위성 방문(11.18)

김정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각종 연설을 통해 정책의 '인민성'을 부쩍 강조했다. 9 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정부 활동의 인민적 성격 강화"를 거론하면서 "인민의 생활 조건에 무관심"하거나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 "근절"을 주장했다.⁵ 10 월 당 창건 기념행사 연설에서도 '인민'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꺼내 들었으며, "최장수 집권당 비결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거나,⁶ 80 년 당 영도사를 "인민을 위한, 인민의 힘에 의한 역사"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제 발전에 "인민이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⁷ 12 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민성'을 구현하는 문제를 강조했으며,⁸ 2026 년 신년 경축 행사 연설에서도 '인민'이란 단어를 10 여 차례 반복했다.

북한 당국이 '인민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지도자의 애민 정치 선전을 위해, 정책의 '신(親)인민성' 부각으로 동원 체제 강화를 위해, 혹은 민심 이반이 심각할 때이다. 5개년 계획 마무리를 위해 성과 독려가 필요한 시점에 '당성'이 아닌 '인민성'을 강조한 점이 특이한 바 민심 이반이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⁹ 김정은은 2024년 1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민심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내걸었다. 2025년 1월에는 느닷없이 당 비서국 회의를 소집해 특권기관의 '인민 이익 침해'에 경종을 울렸다.¹⁰ 2025년 하반기엔 당의 영도나 정책 관리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계획보다 민심이 귀중하다"라고 언급하여 민심 이반이 심각함을 시사했다.

2. 경제 분야

김정은의 2025년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은 37회(상반기 13회, 하반기 24회)로 '논판메기양어실태 시찰'(7.24)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 현장 방문 활동이었다. 그중 병원 건설 현장 방문이 11회 가장 많았고, 신의주종합온실농장 건설장 방문 5회,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 7회, 낙원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현장 방문 4회, 살림집 건설현장 방문 4회를 차지했다. 이밖에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공사(3.7),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6.24) '논판메기양어실태 시찰'(7.24) 학용품공장 건설장(11.4),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11.20), 삼지연 호텔 준공식 참석이 각각 1회다. 살림집 건설 현장방문은 화성지구 4단계 완공 시점인 올해 봄에 찾아질 것이다([표 3] 참고).

김정은의 2025년도 경제 분야 활동은 병원 건설 현장과 신의주종합온실농장 및 양어장 건설 현장 방문에 주력하면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대한 열의가 현저히 식은 점이 특징이다. 평양 및 지방 병원 건설 현장 방문이 11회, 신의주 온실 공사와 낙원군 양식장 건설 현장 방문이

9회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김정은이 병원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¹¹ 그는 2026년부터 매년 20개 시군에 병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폐지된 북한의 현실로 볼 때 김정은이 돈벌이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의 해석도 있다.¹² 반면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 보도는 2024년 8회에서¹³ 2025년 7회로 줄었으며 그것도 준공식에만 연초(1.7) 한 차례, 12월에 6차례 방문했을 뿐 지난해처럼 공사 도중에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또 새로 준공된 지방공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하는 활동도 없었다. 다만,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외연을 경공업 공장 증설에서 양식장·온실·병원 건설로 확대하면서 새로 확장된 사업 현장을 찾기에 분주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김정은이 경제 지도 과정에서 과도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자재·자원 부족이 정책집행 부진으로 이어졌음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실이 두 차례 확인되었다. 한번은(6월 당 전원회의 추정) 간부가 "현존 시멘트 생산량으로는 2025년의 방대한 건설 대상을 다 해낼 수 없으니 다음 해로 이월하자"라는 건의에 김정은이 "예비는 대중의 심장에 있다"라며 사상 발동으로 증산 독려를 지시해 시멘트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이 확인됐다.¹⁴ 다른 한 번은 김정은이 11월 학용품공장 건설장을 방문해 "당 전원회의에서 학용품·교구 공장 설립을 의결하는 결정서가 8차례나 채택되었으나 올해 중반까지 진척되지 못했다"라며 착공 지연을 질책하면서 오는 "12월 전원회의에서는 중요 정책사업들이 몇 년간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¹⁵ 이로 볼 때 2025년 '전면적 부흥'을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자재·자원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내지는 부실 공사가 빈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김정은의 2025년 경제 현장 방문 활동

구분	상반기 경제 현장 방문(13회)	하반기 경제 현장 방문(24)
살림집 4회	화성지구 4단계살림집 착공식(2.16) 화성지구 3단계살림집(3.15,4.5,4.15준공)	
지방공장 7회	재령군지방공업공장 준공식(1.7)	평남 신양/북창/은산 지방공업공장(12.3) 강동 지방공업공장·봉사소 준공식(12.15) 장연군 준공(12.18), 신포시 준공(12.19) 정평군(12.24), 은산종이공장 준공(12.28)
양어장· 온실 9회	압록강(신의주)온실농장 착공식(2.10),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착공식(2.14)	신의주온실농장(8.1, 9.18, 10.17, 11.26), 낙원군양식사업소(7.12, 8.26, 8.30 준공)
병원 11회	강동병원종합봉사소 착공(2.6), 평양종합병원(2.27),강동병원(6.2),구성병원(6.12)	평양종합병원(9.23, 10.6), 구성병원(9.8, 12.13), 강동병원(10.30, 11.19), 룡강군 병원 및 지방공업공장 준공식(12.29)
기타 6회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공사(3.7),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6.24)	논판메기양어장 시찰(7.24),학용품공장 건설장(11.4), 회양군민발전소 준공(11.20) 삼지연 호텔 준공식(12.21)

3. 군사 분야

김정은의 2025년 군사 분야 활동은 상반기 24회, 하반기 27회로 비슷한 추세다. 하반기 분주한 정치행사와 대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무기개발과 군수생산 독려는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활동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기 개발·생산 독려 및 성능시험 참관 13회, 군사훈련 참관 및 격려 활동 5회, 귀환한 러시아 파병부대 격려 및 파병 위훈관 착공 6회, 무장 장비 개발 과시 행사 3회(정치행사로 분류한 10.10 열병식을 포함하면 4회)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김정은은 무기 개발 독려 및 과시에 치중했다([표 4]

참고).¹⁶

하반기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시험발사)은 줄었으나 신무기 개발 과시는 늘었다. 불법인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보면, ICBM 발사는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발사가 마지막이었고,¹⁷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25년 상반기 4회에서, 하반기 2회를 추가해 6회에 그쳐 외형상 탄도미사일 도발은 줄었다.¹⁸ 그러나 김정은이 9월 방중 직전 신형 ‘화성-20’ 개발 계획을 공개(9.1)하는 등 ICBM 능력을 과시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연설(9.21)과 핵무기연구소 ‘협의회’(9.26)에서 “핵 무력에 의한 평화 유지...핵 대응 태세 계속 진화”를 주장했다. 또 8,700t 핵동력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12.25)하면서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을 비난했고,¹⁹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훈련(12.28)을 하면서 김정은은 “핵무력 무한대 발전 총력”을 주장했다.²⁰

[표 4] 김정은의 2025년 하반기 군사 분야 활동 분류

활동 유형	하반기 군사 분야 활동 내용 27회
훈련 참관·격려 5회	7.23/7.26 포병부대, 8.28/11.1 특수전, 9.12 저격수 부대
무기 개발·생산 및 성능시험 참관 13회	8.18 최현호 무장 체계 운영, 8.23 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 발사, 8.31 미사일 자동화 생산, 9.1 ICBM 엔진 생산 실태, 9.8 탄소섬유고체발동기 분출시험, 9.11 장갑무기·전자무기연구소 방문, 9.18 무인기항공기술연합체 지도, 9.26 핵무기연구소 방문, 12.24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12.25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지도, 12.26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지도, 12.28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 12.28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지도
무기 개발 과시 3회	10.4 무장장비 전시회, 10.5 구축함 ‘최현호’ 시찰, (10.10 당창건 열병식은 ‘정치’로 분류), 11.28 공군창설 80주년 기념행사
파병부대 격려 전사 가족 위로 6회	8.20 해외 작전부대 지휘관 접견, 8.21 해외 작전부대 표창, 8.21 해외 작전부대 축하 공연, 8.29 해외 전사자 유가족 접견, 10.23 파병위훈기념관 착공, 12.12 파병 공병부대 귀환 환영

김정은의 미사일 개발 노력은 신형 SRBM, 지대공·함대지·공대지 미사일 개발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구축함·장갑 무기·전자무기·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관심을 쏟으면서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9.11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 방문 발언). 그리고 무장 장비 전시회(10.4), 당 창건 기념 열병식(10.10)을 통해 최신 무기를 중심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방과학 기술력을

과시했고, 공군창설 기념행사(11.28)에서는 북한판 ‘타우러스’ 등 공군 무기체계를 대거 공개해 한국군과 격차가 큰 공군 전력도 현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5] 참고). 다만, 북한 무기체계의 실제 개발 진척 수준 및 성능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5] 북한의 2025년도 무기체계 개발 과시 행사

행사명	무기체계 과시
무장장비전시회(10.4)	신형 SRBM ‘화성-11마형’, ²¹ 북극성 계열 신형 전략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3M-54E)과 유사 형상 초음속 추정 함대함 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
당창건기념 80돌 열병식(10.10)	화성-20형 ICBM 이동발사대 3대 등장, 천마-20 신형 전차, KN-24 계열로 보이는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 자폭무인기 발사대, 중장거리와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신 무기 중심 공개
공군창설 80돌 기념행사(11.28)	북한판 타우러스, 항공정밀유도탄, 신형 공대공미사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러시아 수송기 개조 추정), ‘셋별 4형’ 고고도 무인정찰기, 미국의 다목적 무인기 리퍼와 비슷한 ‘셋별-9형’ 등

4. 대외 분야

2025년 김정은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대외 활동의 급증이다. 2025년 상반기 김정은의 대외 활동은 5회로 전부 러시아와 관련한 활동이었으나,²² 하반기 들어 대외 활동이 21회로 4배 증가하면서 러시아 관련 8회, 중국 관련 5회, 라오스 및 베트남 관련 4회, 기타 4회로 다양하게 분포했다([그림 1] 참고).

김정은은 9~10월에 러시아·중국·라오스·베트남 정상들과 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은 9월 초 베이징에서의 푸틴에 이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했다. 9월 3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쌍방 관계가 각 분야에서 확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푸틴은 북러 관계를 ‘특수한 신뢰,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의 용감성을 평가했다. 다음날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고위급 내왕과 전략적 소통 강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²³ 김정은은 10월 당 창건 기념행사에 베트남 및 라오스 당 및 국가 지도자를 초청함으로써 동남아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정은의 미국 및 남한에 대한 태도는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10월 당 창건 80주년 행사 연설에서 확인된다.²⁴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²⁵ 연설에서는 절반가량을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할당했다. 미국에는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또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배경으로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한미 ‘침략전쟁 연습’, 한국 정부의 ‘반(反)북 노선’을 열거했다.

당창건 행사의 일환인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 연설(10.4)에서 김정은은 “한국 내 중요 표적에 ‘특수자산’을 할당해 한국영토가 안전한 곳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다. 또 열병식 연설(10.10)에서는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는...공동투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해 북·중·러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²⁶ 한편 김정은은 트럼프 10월 하순 APEC 참석 등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상 회동을 제안했으나 미사일 발사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

2025년 김정은의 대외 활동을 보면, 대러 밀착에 이어 대중 관계 복원에 착수하면서 동남아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선 대화 요구에 불응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북중 관계 회복 속도가 더뎠다. 또 연말 들어 낮은 급의 대미 비난이 재개되고 김정은의 군사 행보가 잦아짐으로써 미북 대화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림 1]金正은의 2025년 대외 분야 공개 활동 분포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2026년 공개 활동 전망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8차 당대회 직후에 매년 100회 내외로 지지부진하다가 2024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해 2025년에는 153회로 더욱 활발해졌다. 여기에는 대러 밀착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러 무기 수출 및 파병에 따른 무기 개발·군수생산 및 군사훈련 독려가 늘었고, 북러 간 고위급 교류에 이은 북중 관계 개선에 따라 김정은의 대외 활동이 증가했으며, 무기 수출 등으로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지방발전 정책을 시행해 최고지도자의 건설 현장 방문도 빈번해졌다.

올해도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활발할 것이다. 올 1월에 김정은은 새해를 맞아 노력

혁신자·공로자, 해외파병 지휘관 가족, 청년 건설자와 학생·소년들을 격려했고, 딸을 대동해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다. 이런 의례 활동 외에도 김정은은 주요 건설사업 완공과 무기 개발·증산 독려 등 경제·국방 분야 '5개년 계획 완결'에 주력했다. 완공단계에 이른 신의주 온실종합농장과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장을 방문했고, 군수공장을 방문해 '전술유도무기의 2.5배 증산'을 주문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는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이 핵무기의 고도화를 요구한다"라고 했다.²⁷ 당대회를 앞두고는 '5개년 계획' 독려와 당대회 준비 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1월 하순에 시군당 대표회를 통해 대표자 선거가 진행(1.24 보도)되었으므로, 곧 도당 대표회를 소집해 당대회에 보낼 대표를 선거하고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일정을 확정·발표할 것이다.

과거 당대회에 비취 9차 당대회(2월 추정²⁸) 진행 과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이 8일간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직후 대회 참가자들(당 대표자 5천 명 + 방청자 2천 명) 대상 강습회·경축 공연과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며, 이어 김정은이 대회 관계자들과 분야별·릴레이식으로의 기념 촬영(과거 5일 진행)을 할 것이다. 5천여 명의 북한 간부들이 3주간 평양에 머물다가 지방으로 돌아가면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지역별 군민(軍民)대회, 기관별 전원회의, 직장별 궐기 모임이 이어진다. 이런 '결사 관철' 결의가 끝나면 도·시·군당 간부 회의, 세포비서 대회 등 정책집행을 책임진 일선 간부들 대상 강습회를 소집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올해 상반기는 회의가 '춤추는' 시기가 될 것이다. 다만 5년 전 최고지도자의 움츠린 모습과는 달리 북러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전면적 부흥 가속화'를 표방함에 따라 김정은은 활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표 6] 2026년 1월 중 김정은 공개 활동

보도일	활동 내용	보도일	활동 내용
01.01	노력혁신자 위한 신년경축공연 참석	01.01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가족들과 기념사진
01.02	신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01.02	설맞이공연 출연 학생소년들과 기념사진
01.03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방문 건설자 격려	01.04	중요군수공장방문 전술유도무기생산 요해
01.05	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 참관	01.06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
01.11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 현지도	01.17	청년동맹 80주년 대회 참가·연설
01.20	룡성기계 1단계 현대화 준공식 연설	01.21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 진행

2. 김정은 공개 활동의 함축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김정은의 공개 활동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핵무기와 상용(재래식) 무력 병행 발전'을 추구해 군수생산과 무기 개발 독려를 위한 군사 부문 행보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둘 것이다. 러시아에 포탄 수출 및 파병 유지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자체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 같은 군사·군수 우선 정책의 장기화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때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해 체제의 호전적 성격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책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종래의 '지방 발전 정책'에 '평양 건설계획'을 추가해 도농(都農) 병행 발전을 위한 김정은의 잦은 건설 현장 방문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지방에 경공업 공장을, 2026년부터는 지방 병원을 매년 20개 시군에 건설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정은이 9차 당대회에서 '수도 건설계획 구상(내용 미상)'을 밝힐 예정이라 그의 '건설 예찬론'은 올해도 반복될 것이다.²⁹ 그는 지난해 "요새는 준공·착공식만 하자 해도 빠르고 분주하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도농이 '현대적' 외관으로 변모하고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하드웨어 확장 경제는 경제관리 구조의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방경공업 공장 등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보다 외연적 확장에 치우쳐 건설사업 목적 차체가 부실해지고, 2025년 시멘트 부족 사례처럼 자재·재원 확보의 한계로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자재 부족을 '사상동원으로 극복하라'라는 김정은 방침이 반복되고, 공급부족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군수와 민수의 양적 확장을 추진하여 경제관리의 비효율성은 더욱 누적될 것이다.

셋째, 집권 15년 차를 맞는 김정은은 올해 정치행사를 주관하면서 '국기 게양식', '충성 결의', '만세 합창' 등 상징조작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서 '인민성'을 고려하라는 요구를 지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제2의 건국'을 성취했다는 선전 활동과 함께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표방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주민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최대한 짜낼 것이다. 이처럼 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신정책을 쏟아내며, 대규모로 엘리트 물갈이가 이뤄지는 2026년에는 민심 이반이나 정책 갈등이 잠복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속으로는 더욱 꿀을 것이다.

넷째, 북한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 사변'이라는 '유리한' 주변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와 동맹임을 부각하면서 중국과는 경협을 확대하는 '안러경중(安俄經中)' 태도를 보이고, 트럼프 미 행정부와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북한의 유리한 정세 활용의 관건은 주변 정세의 향배와 함께 북한이 중국을 얼마나 더 끌어들이지, 미국이 얼마나 북한에 다가설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대회가 끝난 후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문제가 부상할 수 있으나, 대러 이벤트보다는 경협 확대를 위한 김정은의 대중 수사법이 바뀔 것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접근을 위한 특별한 선행 조치를 할 것인지가 정세 100% 활용하기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속내'를 의심하여 기존 셈법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설명방식과는 달리 김정은 정권의 정체성 자체에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지도자' 표방과는 달리 김정은은 '군사적 리더십'으로 내부의 '애송이' 인식을 불식시키려 했고, 포병·핵무기 개발로 이어진 편향된 리더십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대의 타겟을 높이 들 필요가 생겼다고 본다. 올해도 한국과는 당규약과 헌법에 '적대'를 명문화하고 '국경' 규정을 추가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 시사점

김정은의 최근 체제 관리 방식은 '유리한' 주변 정세를 활용하여 정권에 경제적 수혈을 하고 군사·외교적 버팀목을 확장하면서 남북 관계는 적대관계로 몰아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 전환에 집중하여 상대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북한이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는 주변 정세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처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설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러시아와도 대화를 추진하고, 한미일 협력도 다져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 북한정세 관리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남쪽 '국경선' 명문화, 서해 '국경선'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충돌 등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북한이 내부 행사에 집중할 시기임에도 대외적으로 호전성을 드러낼 이유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시험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신무기 체계 지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긴장 정세를 조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강력한 맞대응'으로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이 올해를 한미동맹을 흔들 최적기로 보고 이를 이슈화하기 위한 군사·외교적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북한에 '유리한' 국제정세도 마냥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지난해 강화된 북한 내부 동원 체제는 올해 그 후유증과 함께 잠복했던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원 배분의 왜곡과 경제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외연적 확장 건설사업의 한계 노출, 민생 개선의 한계와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민심 이반과 간부들의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표면화됨에 따라 북한 당국 스스로가 중단기적으로 내부 개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때 북한의 변화가 지그재그식이 아닌, 본질적인 개혁개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저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서보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 인권, 북한 체제, 남북관계 등이다.

[붙임] 2025년 김정은 공개 활동 일람표

월별	보도일	활동 내용
1월 8회	01.01	새해 경축공연 진행 “우리는 조선사람” 노래 공연 (딸 동반)
	01.03	김정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 접견
	01.03	김정은 로력혁신지, 공로자들과 기념사진 촬영(1.2)
	01.07	미싸일총국 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1.6) (딸 동반)
	01.08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1.7)
	01.26	중요무기체계시험 진행
	01.29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01.29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월 10회	02.07	‘지방발전20×10정책’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 착공식 연설(2.6)
	02.09	김정은 조선인민군창건절 즈음 국방성 축하방문(2.8)
	02.11	최대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착공식 참석(2.10)
	02.15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 착공식(2.14)
	02.17	김정은 광명성절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02.17	김정은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연설(2.16)
	02.25	김정은 주체적혁명무력의 최고군사정치학원 김일성정치대학 방문
	02.26	김정은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 현지지도
	02.28	김정은 완공된 평양종합병원 시찰
	02.28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진행
3월 8회	03.08	김정은 온포근로자휴양소신설공사를 현지지도
	03.08	김정은 중요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 료해
	03.16	김정은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현지지도
	03.21	김정은 남포조선소 현지지도
	03.21	미싸일총국 최신행반항공미사일무기체계 종합작전투성능검열 시험발사
	03.21	김정은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의 참가들과 기념촬영
	03.22	김정은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셰르게이 쇼이구 접견
	03.27	김정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탐지전자전연구집단 국방과학연구사업 지도
4월 6회	04.04	김정은 준공앞둔 화성지구3단계구역 중요봉사시설운영준비 현지지도
	04.05	김정은 인민군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 및 종합훈련 지도
	04.16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딸 동반)
	04.26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에서 김정은 연설 (딸 동반)

	04.30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시험 착수
	04.30	김정은 남포조선소 로동계급, 함선공업부문 과학자·기술자들과 기념사진
5월 10회	05.04	김정은 중요 땅크공장 현지도
	05.07	김정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군수기업소 현지도
	05.09	김정은 동부전선구분대 장거리포·미사일체계 합동타격 훈련 지도
	05.09	김정은 러시아 전승절 즈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 방문 (딸 동반)
	05.14	훈련일군대회 강습체계안 진행 병종별전술종합훈련 참관
	05.17	근위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 방문 훈련 지도
	05.19	현철해 사망 3돌 즈음 신미리애국열사능 참배
	05.22	청진조선소 구축함 진수식 참관(5.21)중 사고 발생
	05.30	포병구분대 포사격경기 참관
	05.30	당 중앙군사위 8기 8차 확대회의의 진행
6월 9회	06.03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장 현지도(6.2)
	06.05	로씨야련방안전리사회 서기장 쇼이구동지 접견
	06.10	구성시병원건설장 현지도(6.9)
	06.13	해군 구축함(강건호) 진수식 연설(6.12) (딸 동반)
	06.14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도 (딸 동반)
	06.18	러시아 안보서기 세르게이 쇼이구 접견(6.17)
	06.24	당 8기 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6.21~23) 참석
	06.26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6.24) 진행 (딸 동반)
	06.30	방북 러시아 문화상 접견 및 예술공연 관람(6.29) (딸 동반)
7월 10회	07.08	김일성 사망 31돌 즈음 금수전태양궁전 참배(7.8 0시)
	07.13	러시아 외무상 셰르게이 라브로프 접견(7.12)
	07.14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사업 현지도(7.13)
	07.24	대련합부대 포병구분대 사격훈련경기 참관(7.23)
	07.26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신천계급교양관 시찰(7.24)
	07.26	군부대 후방기지 방문해 논판메기양어실태 요해(7.24)
	07.27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돌 즈음 우의탑(중공군 기념탑) 방문(7.26)
	07.27	전승 72돌 즈음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참배(7.26)
	07.27	전승절 즈음 특별초청 4군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과 기념사진(7.26)
	07.27	전승절 즈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7.26)
	08.02	위화도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섬지구 영구화제방 공사장 현지도(8.1)

8월 18회	08.13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전화대화(8.12)
	08.15	러시아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 접견(8.14)
	08.15	조국해방 80돌 즈음 대성산혁명열사능 참배(8.14)
	08.15	조국해방 80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8.14)
	08.15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참가 연설(8.14)
	08.15	조국해방 80돌 경축 예술공연 진행(8.14)
	08.16	조국해방 80돌 즈음 해방탑 참배(8.15)
	08.16	조국해방 80돌 즈음 러시아 예술인 경축공연 관람(8.15)
	08.19	구축함 최현호 방문 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 및 해병 훈련 요해(8.18)
	08.21	국가표창수여식 참가 위해 귀국한 해외작전부대 주요 지휘관 접견(8.20)
	08.22	해외작전부대 지휘관·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참가 연설(8.21)
	08.22	해외작전부대 지휘관·전투원들을 위한 축하공연 관람(8.21)
	08.24*	김정은 성능 개량 위한 2종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 참관(8.23)
	08.27	완공된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시찰(8.26)
	08.28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 방문 훈련실태 요해(8.27)
	08.30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 유가족 접견 및 기념사진(8.29)
	08.31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참가(8.30)
9월 20회	09.01*	김정은, 새로 조업한 군수기업소의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점검(8.31)
	09.02*	미사일연구소 탄소섬유복합재료 및 대출력 발동기 생산 실태 파악(9.1)
	09.02	중국 방문 위해 9.1 평양 출발 9.2 새벽 국경 통과 (발 동반)
	09.03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9.2 오후)
	09.04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 참석(9.3)
	09.04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회담(9.3)
	09.05	중국공산당 총서기·중국주석 습근평과 회담(9.4)
	09.05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오름(9.4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 출발)
	09.06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9.5)
	09.09	탄소섬유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참관(9.8)
	09.09	구성시 병원 건설장 현지도(9.8)
	09.10	정권 창건 77돌 기념 국기계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9.9)
	09.10	정권 창건 77돌 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및 공로자들과 기념사진(9.9)
	09.13*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와 전자무기 연구소 방문(9.11) 수경사 관하와 중앙안전기관 특별기동대 저격수 사격 경기 참관(9.12)

	09.19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현지지도(9.18)
	09.19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사업 지도(9.18)
	09.2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9.21)
	09.24	준공을 앞둔 평양종합병원 시찰(9.23)
	09.27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 만나고 중요협의회 지도(9.26)
10월 21회	10.05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 연설(10.4)
	10.06	무장장비전시회 2일 참관일정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 시찰(10.5)
	10.07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연설(10.6)
	10.08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 겸 국가 주석 룡룬 씨쑤릿 환영의식 (10.7)
	10.08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 겸 국가 주석 룡룬 씨쑤릿과 회담(10.7)
	10.09	당창건 80돌 즈음 당창건사적관 방문 기념 연설(10.8)
	10.10	당창건 80돌 경축 러시아 예술인들 공연 관람(10.9)
	10.10	중국 국무원 총리 리강 접견(10.9)
	10.10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또 럽 환영 의식 진행(10.9)
	10.10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또 럽과 회담(10.9)
	10.10	당창건 80돌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진행(10.9)
	10.10	당창건 80돌 경축대회 참가 및 연설(10.9)
	10.11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접견(10.10)
	10.11	당창건 80돌 국가연회 참가(10.10)
	10.11	당창건 80돌 열병식 참가 및 연설(10.10)
	10.13	당창건 80돌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2)
	10.13	당창건 80돌 행사참가자들 및 보장성원 격려 및 집단체조 관람(10.12)
	10.18	마감단계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건설사업 현지지도(10.17)
	10.24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착공식 참석 및 연설(10.23)
	10.25	중공군 한국전선 참전 75돌 즈음 '중국인민지원군렬사능원' 참배(10.24)
	10.31	완공단계에 이른 강동군병원 시찰(10.30)
11월 11회	11.02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 방문(11.1)
	11.04	김영남 조문(11.4 새벽 1시)
	11.05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사업 현지지도(11.4)
	11.06	김영남 장의식 참석(11.5)
	11.19	창립 80돌 맞는 사법검찰기관 일꾼들 축하(11.18)
	11.19	창립 80돌 맞는 사회안전성 방문 축하격려(11.18)

	11.19	창립 80돌 즈음 국가보위성 축하방문(11.18)
	11.20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 준공식 참석 연설(11.19)
	11.21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참석 및 연설(11.20)
	11.27	완공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장을 현지지도(11.26)
	11.30	공군창설 80돌 기념행사 진행(11.28 갈마비행장) (딸 동반)
12월 22회	12.05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의 실태 현지 료해(12.3)
	12.10	당 중앙위원회 제8기 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막(12.9)
	12.11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조의방문(러시아 대사 사망관련,12.10)
	12.11	당 8기13차 전원회의 2일 회의 참가(12.10)
	12.12	당 8기13차 전원회의 3일 회의 참가 및 폐막(12.11)
	12.13	러시아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행사 참석 연설(12.12)
	12.14	'지방발전 20×10 정책' 구성시 병원 준공식 진행(12.13)
	12.16	'지방발전정책'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 준공식(12.15) (딸 동반)
	12.17	최대 추모의 날(김정일 사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7)
	12.19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12.18)
	12.21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12.19) (딸 동반)
	12.23	삼지연관광지구 호텔 준공식 진행(12.20, 21) (딸 동반)
	12.25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참관(12.24)
	12.25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 준공식(12.24)
	12.25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 현지지도(일자 미상) (딸 동반)
	12.26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일자 미상)
	12.28	헌법절과 신년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12.27)
	12.28	헌법절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 진행(12.27)
	12.29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12.28)
	12.29	평남 은산종이공장 준공식(12.28)
	12.30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방사포차 생산실태 료해)(12.28)
	12.30	남포시 룡강군 병원 및 지방공업공장 준공식(12.29)

* 표시는 노동신문은 보도하지 않고 조선중앙통신만 보도한 활동임. 필자 정리.

- ¹ 여기서 '2025년도 김정은 공개 활동'은 노동신문 보도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의 '혁명 활동' 중에 김정은 서신, 친서 전달 등 활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며, '착공식 참석'과 '착공식 연설'로 구분해 보도한 '혁명 활동'을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했다. 또 김정은 공개 활동 중에 노동신문(및 조선중앙TV)에는 보도하지 않고 조선중앙통신으로만 공개하는 활동도 드물게 있다. 2025년 8~9월 중 4건의 군사 분야 활동을 조선중앙통신으로만 공개한바 이것도 통계에 포함했다.
- ² 북한의 대러 밀착 효과로 군사적 효과 외에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할 정도로의 근거는 미약하나, 러시아의 포탄수출·파병 대가지불, 정제유·밀가루 물자지원 정황은 확인된다. 또 북한 내각은 '5개년 계획'을 완결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한 김정은의 외교적 성공'을 들고 있다. "내각, 8차 당대회 5년 경제성과 총화..."러시아와의 협력이 원동력", 『데일리NK』 (2025.9.11.)
- ³ 2025년 김정은의 딸 동반 공개 활동은 총 15회로, 신형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1.6), 최현호 진수식(6.12), 핵잠수함 건조 사업 현지 지도(12.25) 등 군사 분야 6회,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준공식(4.16),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6.24), 삼지연 관광지구 호텔 준공식(10.20~21) 등 경제 5회이다. 대외 분야는 3회로 본문의 2회 외에 방북 러시아 문화상 접견 공연 관람(6.29)이 있고, 정치 분야는 신년 경축공연 동반 1회이다.
- ⁴ "당창건사적관람행사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9.)
- ⁵ 김정은은 "적지 않은 단위에서 근로자의 생활 조건에 무관심하면서 과제 수행에 치중하는 편향이 보편적"이라거나 "알곡 목표 달성을 위해 농장원 분배 몫을 떼 내는 현상을 근절"하라는 등 "세도·관료주의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거나 "계획보다 민심이 귀중하다"라고 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9.22.)
- ⁶ "당창건사적관람행사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9.)
- ⁷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10.)
- 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5.12.12.)
- ⁹ 북한 당국이 간부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으로 '당성'은 정책의 결사 관철을 요구할 때, '혁명성'은 이색 사조에 대한 견결한 반대를 요구할 때, '인민성'은 정책 내용이 민생개선과 거리가 있어 주민 불만이 증대될 때 강조한다.
- ¹⁰ 북한은 2025.1.27 당 비서국 회의에서 남포시 온천군 간부들의 집단 음주 접대와 자강도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의 주민재산 침해 행위를 '특대 사건화'하여 권력기관의 '인민이익 침해'를 단속했다.
- ¹¹ 김정은은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에서 "오늘에 이어 구성시병원과 룡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올해 모두 6 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기는 셈인데 이런 것을 두고 진짜 변혁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강동군병원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6.24.)
- ¹² 주성하 기자는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고난행군 때부터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의사가 진단 처방하면 환자는 장마당에서 약을 사오고, 그 약으로 의사가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환자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의사에게 돈을 건네야한다"면서 결국 고가의 치료비가 당국으로 들어가 김정은이 돈벌이한다고 해석했다.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무상 치료제 폐지된 북한의 현실," 『동아일보』 (2025.11.25.)
- ¹³ 2024년 김정은은 1.24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기한 이래 2.7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현지지도, 2.28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착공식 연설, 8.25 여러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현지지도, 9.1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 10.5 평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 11.14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 11.19

-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 12.20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연설,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해 토의했다. 2024년에 김정은의 지방공업공장 방문 보도는 8차례 있었다.
- ¹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향도가 있어 우리의 전진은 언제나 즐기차다,” 『노동신문』 (2025.6.24.)
- ¹⁵ “김정은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사업 현지지도,” 『노동신문』 (2025.11.5.)
- ¹⁶ 2025년 상반기 군사 분야 활동은,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에 이은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으로 “핵물질 생산계획 초과 수행”을 주문했고, 2월 국방성과 김일성정치대학 및 강건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해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훈련”을 독려했다. 3~5월 중에는 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지도에 주력했다. 3월에 조선소 2회 방문, 대공미사일 및 무인기 개발 지도, 4월에 특수부대 훈련 참관,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이 있었다. 5월에는 10회의 활동 중 8회가 군사 분야로, 탱크 공장을 방문해 “성능 개선”을, 군수공장에 가서는 “수출용 포탄생산”을 독려했으며, 각종 군사훈련을 빈번히 지도했다.
- ¹⁷ 북한은 2024년 9월 이후 2025년 1월까지의 핵동축시설 공개(9.13, 1.29), 전략미사일 지하기지 공개(10.23), ICBM 화성-19형 시험 발사(10.31) 등으로 핵미사일 위협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엔 ICBM 도발은 자제하면서 재래식 무기 개발 동향이 현저해졌다.
- ¹⁸ 북한의 2025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1.6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발, 1.14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3.10 근거리탄도미사일 수발, 5.8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 하반기 들어, 10.22 신형 극초음속미사일(화성-11마형) 2발, 11.7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김정은은 그중 2회(1.6, 5.8) 참관함.
- ¹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12.25.)
- ²⁰ “김정은동지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 참관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12.29.)
- ²¹ ‘화성-11마형’은 북한의 대표적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으로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임. 전문가들은 10.22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 2발도 ‘화성-11마형’으로 추정함.
- ²² 김정은은 2025년 상반기 중에 러시아 안보 서기 쇼이구를 3차례(3.21, 6.4, 6.17) 접견했고, 5월 7일 러시아 전승절에 즈음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방문했으며, 6월 29일에는 방북 러시아 문화상을 접견하고 러시아 예술 공연을 관람했다.
- ²³ 노동신문에 의하면 시진핑은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면서 이 입장은 국제정세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도 “국제정세가 변해도 조중 친선의 감정은 불변이며, 조중 관계 심화 발전은 북한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앞으로도 국가 주권·영토 안정·발전 이익 수호를 위한 중국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노동신문』 (2025.9.5.)
- ²⁴ 김정은은 2025년 상반기 대외 관련 국방성 방문 연설(2.8)에서 “미국이 핵전략 수단 전개와 핵전쟁 모의연습으로 북한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핵 억제력 가속화를 위한 새 계획사업(미상)”을 밝히는 등 핵 위협 발언을 했다.
- ²⁵ 북한은 9월 20~21일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3차 회의를 열어 20일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과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하고 ‘도시경영법 집행 감독 정형’을 토의했고, 9월 21일에는 김정은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청취했다.
- ²⁶ 2025년 11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지역 안전 균형의 파괴 원흉”이라는 논평을 발표해 북한이 중러와 지역 현안을 두고 조율된 목소리를 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²⁷ “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 진행,” 『노동신문』 (2026.1.5.)
- ²⁸ 북한이 과거 7차 당대회를 시군당 대회 23일 후, 8차 당대회를 약 한 달 뒤에 소집한 전례로 볼 때 오는 2월 중하순에 9차 당대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 보임.
- ²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6.1.11.)